

### 합평, 고향사랑기부자 ‘온라인 명예의 전당’ 개설 군청 누리집에 500만원 이상 기부자 이름 등 게시

합평군이 고향사랑기부제 온라인 명예의 전당을 개설해 눈길을 끈다. 합평군은 21일 “합평군청 누리집(홈페이지)에 ‘고향사랑기부제 기부자 명예의 전당’을 개설했다”고 밝혔다.

군은 기부자에 대한 예우와 감사의 마음을 표하고, 고향사랑기부제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명예의 전당을 개설했다.

온라인 명예의 전당에는 고향사랑기부금 500만원 이상 기부자의 이름과 소속 등이 게시되었다. 이 이상의 합평군수는 “우리 군에 기

부해 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며 “아울러, 기부금이 지역 발전을 위해 적재적소에 쓰일 수 있도록 기부사업 선정에 신중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고향사랑기부제가 올해 1월 전국적으로 시행된 가운데 현재까지 총 996명이 온·오프라인을 통해 합평군 고향사랑기부제에 동참했다. 기부자들이 가장 선호한 답례품으로 합평사랑상품권(30%)이 1위를 차지했으며, 합평천지한우모듬(13%), 잡곡세트(10%), 벌꿀(10%)이 뒤를 이었다. /합평=김용희 기자

### 장흥,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 개최

위기청소년 발견·보호·지원 관련 정책 논의



장흥군은 19일 군청 상황실에서 2023년 제1차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 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는 위기청소년 발견·보호·지원하는 청소년 안전망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위기청소년의 복지 및 보호와 관련된 정책 등을 심의한다.

이날 회의에서는 청소년 안전망 운영 실태 점검, 고위위기청소년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을 점검했다.

위기청소년 특별지원사업 대상자 선정 심의, 관내 청소년 보호 방법에

대한 유관기관 의견 수렴 및 협력방안 등도 함께 논의됐다.

특히 지역 위기청소년 2명에 대한 현금지원이 결정됐다.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 위원장인 조석훈 장흥군 부군수는 “장흥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유관기관의 협력이 가장 중요하다. 앞으로도 위기청소년 발생 예방과 위기청소년 지원을 위해 장흥군청소년안전망이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여 청소년 보호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장흥=임민기 기자

### 장성, 스마트 국가지점번호판 설치

축령산 등 31개소 설치... 응급상황 구조 위치 신고

장성군이 축령산과 병풍산 입도 31개소에 스마트 국가지점번호판을 설치했다.

국가지점번호는 전 국토를 가로, 세로 10m씩 격자형으로 나눈 위치표시체계로 문자, 숫자 조합 10자리로 구성되어 있다. 산악, 하천 등 건물이 없는 지역에서 응급상황 발생 시 정확한 위치를 신고하기 위해 고안됐다.

스마트 국가지점번호판에는 국가지점번호와 QR코드가 함께

기재되어 있다. 응급상황에서 국가지점번호 입력에 어려움을 겪을 때 스마트폰 카메라를 켜 QR코드를 비추면 된다. 해당 위치 국가지점번호가 휴대전화에 자동으로 입력돼 신고 시 용이하다.

장성군 관계자는 “야외활동이 활발해지면 안전사고 발생 확률도 함께 증가한다”면서 “앞으로도 스마트 국가지점번호판 설치를 꾸준히 확대해 군민과 방문객의 안전도를 높여가겠다”고 밝혔다. /장성=심재식 기자

## 나주, 지방상수도관 파손 신속 응급 복구

### 윤병태 시장, 사고 현장 점검 “단수 가구 물 신속 공급 등 주민 불편 최소화 총력”

나주시가 21일 삼영지구 우수저류시설 설치 공사 현장 인근 상수도관 파손으로 단수가 발생해 신속한 대응 조치에 나섰다.

나주시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30분 경 재해예방사업인 삼영1지구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 공사 현장에서 연약지반에 매설된 상수도관로 침하로 접합부가 이탈하면서 상수도관(D600×300mm) 연결부위에서 누수가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로 인해 왕곡·봉황·세지면, 영산포 지역 등 총 9517가구와 초·중·고교 10개소, 혁신·일반산단, 상가 등에 수도물 공급이 중단됐다.

윤병태 나주시장은 즉각 사고 현장을 찾아 긴급 복구 상황을 점검했다.

윤 시장은 “주민 생활 불편 최소화를 최우선 해 신속한 누수 복구에 총력을 기울여달라”며 “복구 전까지 긴급재난문자 발송, 산단·학교 등 대수용가, 단수 가구 물 공급에 신속을 기해 주민들의 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가겠다”고 밝혔다.

나주시는 한국수자원공사 나주수도지사와 긴급 복구 작업에 착수했다. 이날 오후 6시께 복구가 완료되면 단계적인 물 공급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산단, 학교 등 대수용가에 비상급수차(15) 20대를 투입한다. 단수 가구에는 1.8리터 병을 1만5900병을 신속히 공급하기로 했다. /나주=조성준 기자



윤병태 나주시장은 21일 삼영지구 우수저류시설 설치 공사장 인근 상수도관 파손 현장을 즉각 방문해 주민 생활불편 최소화를 위한 복구, 물 공급에 총력을 기울여 줄 것을 당부했다.

## 담양, 국제슬로시티 재인증 쾌거... 본격적인 활동 전개

### 2007년 12월 이후 네 번째 재인증... 주민이 주도하는 슬로시티 목표

담양군은 국제슬로시티 연맹이 담양군의 슬로시티 재인증을 승인했다고 21일 밝혔다.

담양군은 전통이 살아 숨 쉬는 돌담길, 고택의 예스러움과 한과, 장류 등 전통 음식문화의 보존 등을 인정받아, 2007년 12월 아시아지역 최초로 슬로시티 인증을 받았으며 5년 주기로 이뤄지는 평가에서 이번 6월 네 번째 재인증을 받았다.

군은 이에 발맞춰 슬로시티 사무국

의 본격적인 활동을 개시한다.

슬로시티 사무국은 지난 2월 인력을 보강하고 지역에 맞는 슬로시티 전략을 세우기 위해 주민들과 함께 자원조사를 진행해왔다.

또한 주민 정체성과 공동체 회복을 위한 주민 주도형 협업 시스템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이를 위해 사무국은 지난 12월 문화관광해설사들을 대상으로 슬로시티 매니저 양성을 위한 기초교육을

추진했으며, 앞으로 남부권 광역관광개발계획과 함께 슬로시티의 정체성에 맞는 사업을 발굴해 매력적인 슬로시티를 건설할 계획이다.

이병노 담양군수는 “앞으로 슬로시티 전담팀을 구성해 생태, 역사, 문화 자원이 어우러진 담양군의 정체성에 맞는 슬로시티 정책을 추진해 선도적인 슬로시티로 발돋움 해나가겠다”고 전했다. /담양=조성준 기자

## 영광 법성포 단오제 대비 식품접객업소 위생점검

영광군은 22일부터 4일간 진행되는 법성포 단오제 의 성공적인 개최와 식중독 예방을 위해 식품접객업소의 위생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500여 년의 역사와 전통을 가진 유서 깊은 민속축제 중 하나인 법성포 단오제가 진행됨에 따라 많은 관람객이 법성포를 찾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영광군 위생팀은 법성포 소재 음식점과 야시장 등의 청결한 위생상태유지와 식중독 예방 등을 위해 축제준비기간 및 진행기간 중 수시 위생점검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식품접객업소의 위생도 착용 및 건강진단여부, 영업자 준수사항 등 식품위생법 위반여부에 관한 위생점검과 더불어 친절하게 손님을 맞이하는 친절교육도 함께 진행할 예정이다.

또한 식중독 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홍보부스 및 캠페인 등을 진행하여 안전한 축제가 진행되도록 할 계획이다.

강종만 영광군수는 “영광군의 대표축제 중 하나인 단오제를 찾는 많은 관람객들이 친절하고 위생적으로 축제를 즐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영광=서종민 기자

## 화순군-조선대, 지역상생 공유·협업 업무협약

### 교류 협력체계 구축 등 ‘동반성장’ 노력



화순군은 조선대학교와 최근 지역상생 공유·협업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군과 대학 간 교류 협력 체계를 구축하여 지역과 대학의 동반 성장을 위해 추진됐다.

양 기관은 지역혁신 협력 협의체를 구축해 다양한 사업을 공유하고 협업하기로 했다.

주요 협약 내용은 ▲군-대학 간 신규 협력 사업 발굴·추진 ▲국비사업 및 도 사업 공모 공동 대응 ▲기

업지원 서비스 ▲학생 취·창업, 현장실습 공동 지원 ▲대학-지자체-관계기관 간 협업을 통한 지역 혁신 ▲의료, 환경, 문화예술관광, 도시재생, 사회복지 분야 협력 등이다.

구복규 화순군수는 “호남 제일의 명문 사학과 업무협약을 체결해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라며 “조선대학교와 긴밀하게 교류하고 협력하여 지역과 대학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겠다”라고 말했다.

민영돈 총장은 “조선대학교는 화순군과 가장 가까운 대학이다”라며 “협약을 바탕으로 화순군과 긴밀한 협력관계를 맺고, 우리 대학의 장의적이고 전문적인 인적 자원을 활용해 양 기관이 동반 성장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화순=주용현 기자



멜로우 시티



장성군








색(色)채도시 장성에서 즐기는 색(色)다른 여행

# 멜로우시티 장성